

## 남성 Vest의 기원과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金瑞英\*·李順紅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성신여자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 A Study on the Origin and the Developing Process of Vest for Men

Seo-Young Kim\* and Soon-Hong Lee

Professor, Department of Clothing, Sungshin Women's University

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Clothing, Sungshin Women's University\*

#### 目次

Abstract

I. 緒論

II. 조끼(vest)의 起源

III. 조끼(vest)의 變遷過程

1. 中世

2. 近世

3. 近代

IV. 조끼(vest)의 構成과 素材 및 裝飾

1. 形態 및 構成

2. 素材와 色相

3. 裝飾과 附屬品

V. 結論

參考文獻

#### Abstract

Vest is a general term for a sleeveless upper garment and it derives from a kolobus of a sleeveless tunic style that was started to be worn as a substitution of a chiton by the peasantry in Greek period. The kolobus started to be called a colobium or a tunica from Roman period and the former was named for a vest style tunica which was worn by the people of the lower classes in early Roman period. Similarly, a German colobium of North Europe which was worn during the same period was the same kind of clothe as the Roman colobium. The colobium came to be worn over a dalmatica as an outer garment by early Christians when it was the Middle Ages, who succeeded the tradition of colobium as they went through ancient Rome, Greek and Byzantine days. North Germans also succeeded the colobium tradition of ancient Germans as it was and so continued to wear it in tight style. The simple vest style of colobium was getting vanished from the mid of the Middle Ages and a new style of vest named jupon was started to be worn by soldiers. The jupon was to protect soldiers' bodies from either severe cold weather or enemies wearing under armors as it was made with double cotton pad by quilt. From 14th century, the jupon began to be worn by not only soldiers but also the humble of lower classes. All the jupon which were made in quilting and padding of that time began to be named a

pourpoint by the humble. When Renaissance in 16th century came, the pourpoint began to be developed to an exaggerating body-line style. The neckline of pourpoint was getting highly influenced by Spain and a peacock-belly of it emphasized the exaggerated masculine beauty of Renaissance by padding in round. The sleeves were puffed out and the whole pourpoint was made to expose an inner chemise by slashing vertically or obliquely. But in 17th century, the pourpoint has been changed into more simple style without padding, puffing out and slashing influenced by the citizens' clothes of Netherlands. The pourpoint came to be more comfortable bulky style with short sleeves or sleeveless and straight side lines. The pourpoint in mid 17th century turned to be a bolero jacket style by gradually being tightened. It had been then changed into a vest style with sleeves and worn under an overcoat with the name of veste in the end of 17th century. The early veste was 2~3 inches less in length than the overcoat and had long sleeves and many ornamental buttons on front. It was also made as a home wear to be worn it alone at home. In 18th century, the length of the veste became shorter compared with that of 17th century and the most important decorative item in clothes. It again came to have complete sleeveless vest style and had very short length reaching waist in the end of 18th century. When it was in 19th century, the veste had developed into more various style and colors and style had been applied to be worn by individuals with their tastes. Around the end of 19th century, the increasing tendency to be casual by industrialization influenced on clothes in all aspects of life and so the male vest has been gradually changed into more casual style. Nowadays, it has been developing into various uses in modern male clothes to show their characters.

## I. 緒 論

예로부터 조끼(vest)는 소매 없는 상의를 총칭하는 의복으로서, 블라우스나 스웨터, 셔츠 위에 입거나 투피스(two-piece)나 코우트(coat) 안에 입혀지고 있으며 웨이스트코트(waistcoat), 웨스킷(weskit), 베스터(vestee)라는 명칭으로 불리우고 있다. 남녀노소에게 두루 입혀지며 단순히 방한용이 아닌 의상 전체의 밸런스를 맞추어 개개인의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품목으로서, 현대로 오면서 그 의미와 중요성은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다.

특히 남성조끼는 현대 남성 수트의 完成을 이루게 한 基本品目으로서 男性服飾중 가장 裝飾的인 아이템(item)이 되었으나, 다른 男性服飾에 비해 그 研究가 아직은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研究에서는 現代의 남성조끼가 어떠한 過程을 거쳐 發生하고, 어떻게 完成되었는지 그 起源과 變遷過程을 考察해 보고자 한다. 본 研究에서는 먼저 조끼의 形態를 갖추고 있는 古代服飾을 조사하여 그 起源을 알아보고 中世, 近

世, 近代를 研究範圍로 하여 조끼의 形態와 構成, 素材와 色相, 裝飾과 附屬品이 어떻게 變化해 왔는지 考察해 보고자 한다.

研究方法으로는 先行되어진 論文과 文獻을 中心으로 여러 회화집과 그림자료, 사진을 통해 研究考察해 보았다.

## II. 조끼(vest)의 起源

기원전 7000년경부터 人類는 文化生活에 들어 서기 시작했고, 고대인들은 文化가 시작된 따뜻한 溫暖한 지중해 주변국가인 이집트, 서아시아, 그리스, 로마를 중심으로 몸에 헐렁하게 천을 둘러 입는 드레이퍼리(drapery) 形態의 衣服을 着用하였다<sup>1)</sup>.

반면 추운 氣候條件을 가진 北方게르만 민족들은 그들의 自然환경을 견디내기 위하여 지중해 주변국가와는 다르게 신체를 감싸는 四肢密着形의 衣服을 着用하고 있었다.

조끼는 소매 없는 上衣를 總稱하는 衣服으로서, 古代에는 추운 기후조건을 견디내기 위한 防禦用으로, 혹은 身分이나 부유함을 나타내기 위

1) 백영자, 유효순, 「서양복식문화사」(서울:경춘사, 1989), p. 3.

한 身分표시의 目的으로 男性들에게 着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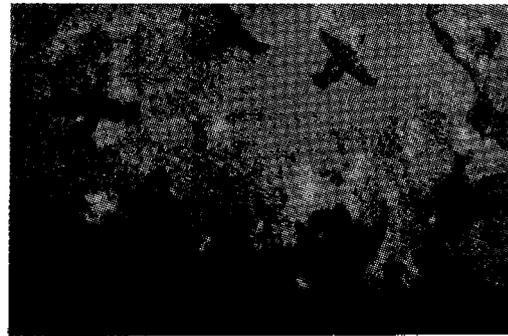
服飾史的 考察에 의하면 조끼의 起源에 관해서는 그 증거가 빈약하고, 학자들마다 주장하는 바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어디에서 유래하게 되었는지 정확히 정의할 수 없으나, 로마의 역사학자 타키투스(Tacitus)가 B.C.98년경, “모든 사람이 공용한 의상은 사굼(sagum)인데, 겹쇠나 가시로 고정하였다. 다른 피복은 없이, 그들은 불 앞에서 거의 하루를 보낸다. 조끼를 입은 사람은 더 부유한 사람들이었는데, 늘어지지 않고 꼭 맞게 걸쳤으며 모든 손발의 모양이 나타났다.” 라고 쓴 글을 통하여 이미 기원전부터 조끼형태의 衣服이 고대 게르만족들에게 着用되고 있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게르만족들이 착용하던 조끼는 몸에 꼭 맞는 密着形 衣服으로서 콜로비움(colobium)이라는 名稱으로 불리워졌으며, 콜로비움은 小農계급에서 주로 추위를 막기 위한 防禦用 외무대용으로 着用되었고, 일부 부유층에서는 의투 안에 값비싼 동물가죽으로 만든 콜로비움을 着用함으로써 保溫의 기능과 함께 자신의 身分을 과시하기 위한 手段으로 着用되기도 하였다.

콜로비움은 원래 그리스 시대의 소매 없는 튜닉 스타일의 衣服인 콜로버스(kolobus)가 로마 시대에 와서 콜로비움으로 이름 붙여진 옷으로서<sup>2)</sup> 베스트의 기원에 관해서는 콜로비움의 前身인 그리스의 콜로버스가 가장 연관성이 깊을 듯 하다.

콜로버스는 로마시대로 오면서 콜로비움으로 그 名稱이 變更되었는데, 로마의 콜로비움은 일반 튜닉(tunic)형태에서 발달된 衣服인 튜니카(tunica)를 指稱하는 말이었다<sup>3)</sup>.

로마 초기의 튜니카는 소매를 달지 않아 소매가 없는 形態의 길이가 짧은 옷이었으며<sup>4)</sup>, 콜로비움은 바로 로마 초기의 소매가 달리지 않은 조끼형태의 튜니카를 지칭하는 것으로 <그림 1>에서 처럼 어부나 농민같이 주로 신분이 낮은 계층에서 착용된 의복으로 생각된다.



<그림 1> 콜로비움을 착용한 로마인들의 수렵과 어획.

(동아미술대전집(로마미술)3권, p. 5)

청동기 시대부터 발달해 온 게르만 服飾은 한랭한 氣候로 인하여 여러 옷을 겹쳐 입는 등 불가피한 實用性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人體에 밀착시키는 의복형태였으며<sup>5)</sup>, 로마의 콜로비움도 점점 이러한 게르만 服飾의 영향을 받아 단순한 衣服形態에서 몸의 曲線에 맞는 立體的인 方法으로 發達하게 되었다. 이것이 中世에 와서는 人體表現의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사용됨에 따라서 立體的인 裁斷技術의 향상을 가져왔고, 기존의 堊형한 조끼형태의 콜로비움은 점점 사라지게 되면서 좀더 몸에 密着되는 形態의 衣服이 나타나게 되었다.

### Ⅲ. 조끼(vest)의 變遷過程

#### 1. 中世

##### 1) 歷史的 背景

中世는 西로마가 멸망한 5세기 후반부터 東로마가 멸망한 15세기 중엽까지 약 1000여년간을 지칭하며, 이 기나긴 시기는 古代와 近代史를 연결하는 中間的인 시기로서 近世 유럽문화의 밑바탕이 된 점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5세기경부터 비잔틴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

2) 김현숙, 「무대의상 디자인의 세계」(서울:고려원, 1995), p. 146.

3) 上掲書, p. 146.

4) 정홍숙, 「服飾文化史」(서울:敎文社, 1987), p. 73.

5) 백영자, 유효순, 前掲書, p. 206.

풀은 세계의 交易와 文化의 중심지로서 北東아시아의 부유한 대상들과 西유럽의 상인들의 交易이 활발해지게 되었다. 9세기말에는 콘스탄티노플에 길드제도가 생겨났으며, 9세기에서 13세기에는 織物産業이 특히 번성하였고, 십자군 원정에 의해서 東方의 織物과 服飾이 西유럽에 전파되면서 비잔틴은 東西文化 交流의 중심지가 되었다.

비잔틴文化가 현재의 東유럽지역에서 융성할 동안 西유럽지역에서는 게르만 민족이 복잡한 大移動期를 거쳐 유럽의 王과 貴族 및 市民 등 여러 社會階層에서 활발한 鬭爭의 역사가 繼續되면서, 5세기경에 와서는 그들의 힘으로 프랑크 왕국을 세우게 되었다. 프랑크 왕국은 10세기 말경에는 독일, 프랑스, 영국, 北스페인, 이태리 등의 지역으로 나뉘어져 각각의 王國이 성립되면서 오늘날 유럽 세계의 기틀을 이루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學識이 풍부한 교육받은 聖職者들이 世俗的인 傾向으로 홀려 權力을 추구하고, 대규모의 성당건축에 힘을 기울이게 되면서 게르만이나 東方人이 갖는 우상적인 裝飾形式과 古代 그리스, 로마가 가졌던 自然的 人間性과의 결합된 樣式으로서, 그 理想은 로마에 두고 있으나 이를 獨創的이고 創造的인 精神으로 時代에 맞게 再構成한 새로운 樣式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中世중기의 로마네스크 樣式(Romanesque style)이었다<sup>6)</sup>. 로마네스크의 독특한 樣式은 이 시대의 服飾에도 표현되고 있는데, 로마네스크시대의 衣服은 점차적으로 人體의 曲線美를 나타내는 衣服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도기적인 성격을 띄게 된다.

이 시기의 경제적인 변화로는 東西間의 국제무역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탈리아의 제노바, 피사, 베니스 같은 商業都市들이 크게 발전하게 되었다<sup>7)</sup>. 13, 14세기를 통하여 가장 눈부시게 발전한 직물공업은 새롭게 나타난 고딕 樣式(Gothic style)의 藝術과 교차하면서 특징적이고 복잡하기도 하

나 一貫性 있는 衣服樣式을 형성하였다.

십자군 전쟁이 실패하고 14, 15세기에 걸친 영국과 프랑스간의 백년전쟁, 영국에서의 왕위다툼 등 여러 전쟁으로 君主勸이 강화되어 프랑스와 영국은 君主政治制度가 確立되어 갔고 중앙집권 국가로의 성장을 가능케 했으며<sup>8)</sup> 교황과 교회의 權威가 떨어져 가면서 교황을 비롯한 성직자의 타락과 부패도 심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교회의 개혁을 부르짖는 소리도 점차 높아지게 되었다<sup>9)</sup>.

## 2) 중세초기(A.D. 5~10세기)의 조끼

그리스와 로마의 服飾을 그대로 이어받은 비잔틴제국에서도 古代와 마찬가지로 소매 없는 튜닉스타일의 콜로비움은 주로 身分이 낮은 하층계급에서 着用되었다.

그러나 비잔틴의 콜로비움은 고대의 콜로비움과는 달리 宗教的인 色彩를 띄면서 着用되어졌는데, 그리스도가 식민지에서 태어나 콜로비움이라는 勞動服인 소매 없는 단순한 사각형의 튜닉을 입었다고 믿은 초기기독교인들이 콜로비움을 着用하기 시작하였다<sup>10)</sup>. 이때에는 오직 身分이 낮은 賤民들만이 허리에 띠를 매지 않은 모양으로 콜로비움 하나만 着用하였다<sup>11)</sup>.

西北部유럽에 여러 국가를 형성한 중세 게르만인들은 古代 게르만의 傳統을 그대로 이어받아 四肢를 감싸는 密着形의 衣服을 입었고, 이는 고대의 원피스형 튜닉과는 다른 투피스형의 衣服을 창안하게 되었다. 투피스형의 衣服은 上, 下衣로 나뉘어 쥬퐁(jupon(佛))과 下衣 혹은 스커트(skirt)와 上衣, 자켓(jacket)과 스커트 같은 形式을 가졌는데<sup>12)</sup>, 身分이 낮은 下層階級이나 소농민들에게 입혀진 게르만의 콜로비움은 소매가 달리지 않은 자켓 形態의 조끼(jupon)로서 험령한 튜닉形態인 비잔틴의 콜로비움과는 다른 立體的 裁斷方法으로 만들어져 바지와 함께 주로 男性들에게 着用되었다.

6) 백영자, 유효순, 前掲書, p. 178.

7) 이은영, "중세말기 서양복식의 특징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p.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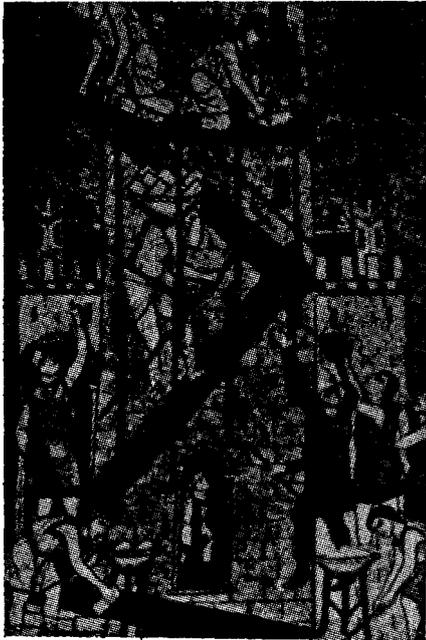
8) 한대희, 채수환 編著, 「文化史概說」(서울:良書院, 1994), p. 241.

9) 上掲書, p. 240.

10) 백영자, 유효순, 前掲書, p. 161.

11) 김현숙, 前掲書, p. 163.

12) 李春姬, 「西洋服飾社」(서울:益文社, 1976), p. 37.



<그림 2> 13세기 건축업자들의 모습.  
(中田滿雄, 着裝の歴史, p. 111)

### 3) 로마네스크 시대의 조끼

중세 초기 비잔틴제국과 서유럽 게르만의 下流層에서 주로 着用하였던 헐렁한 튜닉형태의 소매 없는 폴로비움은 중세 중기로 오면서 立體的인 실루엣을 지향하는 로마네스크적인 衣服경향으로 인해 점점 몸에 맞는 形으로 發展하게 되었다. <그림 2>는 13세기 건축업자들의 모습으로서 노동자들은 소매가 없는 튜닉형태의 폴로비움을 着用하고 있다.

11세기말부터 13세기말에 걸쳐 약 200년간 계속된 십자군 전쟁은 西洋衣服이 동양의 平面構成과는 다른 立體的 構成으로 轉換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고, 군복이 점차 一般人에게 流行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形態의 조끼가 등장하게 되었다.

십자군 전쟁이 進行되면서 군복이 금속판의 쇠비늘 갑옷으로 변하게 됨에 따라 날카로운 철갑들로부터 군인들의 몸을 保護하고 추위와 적군의

무기로부터 身體를 保護하기 위하여 갑옷 아래에 심(pad)을 넣은 조끼를 입기 시작하였다. 이는 호그톤(haugueton)이라는 이름에서 由來되어 오그톤(augueton)이라 불렀는데, 두터운 면 두 겹 사이에 패딩되거나 누벼졌다. 또는 그 당시 누벼는 것을 갬브와즈드(gamboised)라고 했기 때문에 갬비슨(gambeson)이라고도 하였으며<sup>13)</sup> 웨이스트 코우트(waistcoat), 패디드(padded)라고도 불리우며 갑옷 속에 입혀졌다(그림 3).

그러나 가장 一般的인 이름으로는 쥐뿔이라고 불리웠다. 쥐뿔은 11, 12세기에 군인들이 갑옷아래에 身體를 保護하기 위하여 中間服으로 着用하였으나, 칼이나 창 공격에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하게 처리되어 갑옷 없이도 着用되었다.

쥐뿔은 身體에 꼭 맞게 裁斷되었는데, 이와 같이 몸에 꼭 맞는 衣服은 기존의 헐렁한 튜닉형태의 폴로비움과 같은 트기 方式으로는 입고 벗기가 불편하였으므로 단추를 촘촘하게 달거나 끈으로 조여서 여미는 方法이 고안되었다<sup>14)</sup>.

### 4) 고딕시대의 조끼

14세기말부터 속으로 누빈 쥐뿔은 男性들의 옷과 결합하여 가운데에 입는 上衣로서 市民들에게 流行되기 시작하였고, 15세기로 들어서면서 쥐뿔은 더 이상 군복으로 使用되지 않았으며, 퀴팅되



<그림 3> 여러 모양의 갬비슨.

(Maurice Leloir, *Dictionnaire Du Costume*, p. 166)

13) 崔英玉, “中世 西洋 紋章과 紋章服의 象徵性에 관한 研究”,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4, p. 120.

14) 정홍숙, 前掲書, p. 120.

어지고 패딩되어진 옷들은 모두 부르뽀엥이라는 이름으로 一般人들에게 퍼져 나갔다<sup>15)</sup>. 기존의 쥐뽀엥은 소매가 달리지 않은 조끼形態였던 반면, 부르뽀엥은 소매가 달린 자켓形態로 變形되기 시작했다.

14세기 중엽부터는 동양풍의 카프탄 스타일(caftan style)과 단추가 도입되어 이 시대의服飾에 影響을 주게 되었는데, 부르뽀엥도 이러한 影響을 받아 앞 중심에 단추가 달려게 되었으며 길고 타이트(tight)한 소매에도 팔꿈치부터 소매단까지 단추로 채워지게 되었다.



<그림 4> 영국의 더블릿.

(Millia Davenport, *The Book of Costume*, p.159)

15세기로 오면서 부르뽀엥은 점점 더 몸에 꼭 맞는 形態가 되었고, 심을 넣은 가슴과 어깨는 더욱 부풀어 갔다. 그 當代에는 극도로 짧은 부르뽀엥과 딱붙는 바지(chausses)의 모습이 男性들에게 있어 最上の 아름다움이 되었다.

부르뽀엥은 영국에서는 더블릿(doublet)이라고 불리웠는데 더블릿이라는 이름은 옷을 이중

로 껴입는다는 意味로부터 由來한 것으로서 이것은 때로 누비거나 혹은 2장의 린넨(linen)을 固定시키기 위해 이중으로 꿰맬다는 뜻이라 생각된다(그림 4).

부르뽀엥과 더블릿을 區別하는 學說도 있는데, 부르뽀엥은 당대의 通常의인 上衣이고, 더블릿은 武裝을 위해 縫合해 누비 만든 胴着이었다고 한다<sup>16)</sup>.

그러나 일반적으로 부르뽀엥과 더블릿은 각 나라마다 불리워진 名稱이 다른 같은 形態의 의복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대부분은 부르뽀엥이라는 名稱으로 通用되고 있다.

부르뽀엥은 近世, 近代로 가면서 점차 그 形態가 縮小되고 變形되어 조끼(veste(佛), waistcoat(英), gilet(佛))의 형태를 갖추게 된다.

## 2. 近世

### 1) 歷史的 背景

歷史的으로 近世란 中世의 암흑을 깨뜨린 여명으로서 16세기 르네상스(Renaissance)시대를 필두로 바로크(Baroque)양식이 形成된 17세기와 로코코(Rococo)양식이 形成된 18세기까지의 期間을 指稱한다.

근세의 시작을 알리는 르네상스는 프랑스어인 「Renatre」라는 말에서 파생된 것으로 「再生」「復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그 어원은 이탈리아의 「Rinascita」에서 由來된 것으로 14세기말부터 시작되어<sup>17)</sup> 16세기에 걸쳐 일어난 長期的인 運動으로서 이탈리아가 그 中心이 되었으며, 프랑스를 거쳐 西유럽 전역에까지 확산되었다.

15세기말 이후 중앙집권적인 국민국가가 發達하고 지리상의 발견에 의하여 상공업이 번영하고 도시의 시민계급이 成長하자 르네상스의 影響은 유럽 각국의 국민적 特徵과 결합하여 독자적인 발전을 하였고<sup>18)</sup> 16세기에는 종교개혁으로 발전하여 유럽의 여러 나라로 擴散되고 근대문화물 창조하는 原動力이 되었다.

17세기 바로크시대로 들어서면서 새로운 향로

15) Herbert Norris, *Costume and Fashion*, vol. II (London : J. M. Dert & Sons, Ltd, 1927), pp. 322-323.

16) 丹野都, 「近代西歐服飾發達文化史」(東京:光生館, 1958), p. 12.

17) 백영자, 유효순, 前掲書, p. 226.

18) 金銀環, 「男性服의 服飾史的 考察」, 淸州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p. 3.

와 새 대륙의 發見으로 해외시장이 개척됨에 따라 유럽 경제는 비약적으로 發展하게 되었으며 그 結果로 귀족계급 외에 상인계급이 강력한 支配階級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17세기에는 바로크 양식의 미술이 繁榮하였는데 이는 원래 “이그러진 진주”라는 뜻으로서 傳統的이고 規範적인 르네상스 양식을 탈피하여 격한 男性的인 感覺과 더불어 기교하고 자유분방한 외형미를 추구하는 이상한 이미지가 강조되어 불어온 이름이다.

18세기에 들어서면서 藝術은 왕족이나 귀족, 부르조아 등의 富裕階에 의해 그 취향이 좌우되었는데, 바로크 樣式보다 더욱 세련된 감각으로 흐르는 듯한 리드미컬한 曲線과 우아하고 여성적 趣向, 관능적이고 화려한 로코코양식이 프랑스의 살롱을 중심으로 해서 번져나가 제각기 독자적인 양식으로 發展했다. 로코코의 어원은 프랑스의 Rocaille와 Coquille인데 이는 「정원의 장식으로서 사용된 조개껍질이나 작은돌의 곡선」을 意味<sup>19)</sup>하는 것으로서 外형상의 양식의 개념보다는 服裝의 개념에 더 치중된 것이다. 로코코 시대의 의복은 가장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服飾形態로 과다한 裝飾을 함으로써 관능적이고 퇴폐적인 絕對主義의 貴族社會를 잘 반영하고 있다<sup>20)</sup>. 그러나 18세기 후반 自由와 平等을 부르짖는 市民들에 의해 일어난 프랑스혁명으로 종래의 貴族衣裝은 궁정이나 일부 上流階에만 남아있게 되고 一般社會에서는 實用性있는 市民的인 衣服이 보급되기 시작했다.

## 2) 르네상스시대의 조끼

16세기 르네상스 시대로 오면서 부르주아는 男性의 대표적인 上衣로서 모든 階層의 男性들에게 애용되었다. 身體保護의 目的으로 前面에 심을 넣었던 것이 市民服이 되면서 16세기에 와서는 身體의 線을 과장하는 방향으로 發展해갔다. 이 과장은 주로 심으로써 이루어졌다. 16세기초 부르주아의 몸체는 前面에 얇게 심을 넣어 받치고, 가슴은 특히 두껍게 하여 길에서는 보이지 않도록

육 안쪽을 누워서 만들었다. 특히 어깨부분과 가슴부분에는 심을 많이 넣어서 자유자재로 모양을 변형하였으며, 어깨와 가슴의 부풀림을 더욱 강조하기 위하여 몸통과 허리 들레선을 가는 모양으로 만들었는데<sup>21)</sup> 이것은 곧 르네상스시대 유행의 焦點이 되었으며 16세기 후반에는 이러한 特徵들이 더욱 현저하게 나타났다.

이 시기에는 소매의 구성이 복잡해져 따로 소매를 만들어 리본이나 끈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유행하였는데, 16세기 중반 경에는 소매가 없는 조끼형태의 부르주아형이 등장하기도 하였다<sup>22)</sup>.

16세기 후엽으로 오면서 부르주아형은 어깨와 소매를 패드로 더욱 크게 부풀리고 허리와 髋(hip)을 가늘게 조여 X자형 실루엣을 이루었으며, 이와 같이 기교적으로 정리된 르네상스 시대 男性들의 衣裝은 화려하고 복잡한 形式으로 인위적인 誇張과 強調를 통해 르네상스시대 새로운 男性美의 개념을 정립시켰다.

## 3) 17세기 바로크시대의 조끼

17세기 초기 20년 동안은 16세기를 지배했던 화려한 스페인 모드가 계속되면서 부르주아형 역시 16세기와 비교해 볼 때 커다란 形態의 變化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기존의 誇張된 形態의 부르주아형은 17세기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부분적으로 간소한 形態로 縮小되기 시작하였다.

부르주아의 옷길도 짧아지면서 허리선이 위로 올라가게 되었고, 앞중심이 V자형으로 깊게 파져 허리선의 모양은 狹窄한 예각이 되었다. 칼라 또한 간편한 휘스크(whisk)와 폴링칼라(falling collar)로 바뀌었으며, 世紀의 進行과 함께 여러 가지 形態의 새로운 칼라가 생겨나 부르주아의 목들레나 칼라에 고정시켰다.

17세기 중기로 오면서 부르주아형은 네델란드 시민복의 영향을 받아 패드와 퍼프, 슬래쉬가 없어지고 보다 간편한 옷차림으로 변해갔다. 소매통도 점점 직선이 되어 손목을 향해서 좁아졌으며, 칼라는 작게 세운 스텐딩칼라 위에 바로크 양식

19) 정홍숙, 前掲書, p. 193.

20) 曹佐鎭, 「世界文化史」(서울: 집영사, 1982), p. 353.

21) 丹野郁, 原田二郎 著, 李熙賢 譯, 「西洋服飾史」(서울: 耕齋社, 1982), p. 100.

22) 鄭敏淑, “16세기 男子服飾에 관한 考察”, 경상대학교 대학원, 1990, p. 21.

의 특징적인 요소인 커다란 레이스의 폴딩칼라를 붙이고 여밈부분에 핸드 스트링(hand-string)이라고 불린 작은 리본을 달았다. 1650년 이후 뿌르뿌엥의 가장 큰 변화는 옷 길이와 소매부분에서 찾을 수 있는데, 옷길이는 점점 짧아져 허리선 위로 올라갔으며 소매길어도 짧아져서 반소매의 길이가 되었고 소매가 달리지 않은 것도 있었다<sup>23)</sup>. 17세기 후기로 오면서 뿌르뿌엥은 점점 더 축소되어 볼레로(bolero style)의 衣服으로 간소화 되었다<sup>24)</sup>.

그 후 17세기 말기인 1680년경에 뿌르뿌엥은 길이가 더욱 짧아져서 <그림 5>와 같은 짧은 자켓形態로 변하였으며, 이때에 나타난 <그림 6>의 조끼는 그 形態와 착용상의 特徵으로 미루어 보아 뿌르뿌엥의 변형<sup>25)</sup>으로 볼 수 있다. 이전의 뿌르뿌엥은 조끼(veste)라는 명칭으로 외부속에 입혀지기 시작하였으며<sup>26)</sup> 영국에서는 웨이스트 코우트(waistcoat)라고 불리우며 주로 家庭內에서 室內服으로 着用되었다.

코파르디 안에 뿌르뿌엥을 着用하던 14세기 그리고 저킨(jerkin)과 뿌르뿌엥을 한벌로 입었던 17세기 초의 流行이 再現된 조끼는 주스또꼬르(justaucorps)속에 바지와 함께 입혀지면서 近代 紳士服의 定形化를 이루어 나갔다<sup>27)</sup>.

초기의 조끼는 튜블러한 실루엣에 몸에 잘 맞고 단은 플레어(flare)졌으며, 큰 가발을 使用하던 時代的 影響으로 칼라는 노 칼라(no collar)였다. 처음에는 엉덩이 길이였으나 점차 길어져서 1690년대에는 외부인 주스또꼬르의 길이보다 약간 짧은 길이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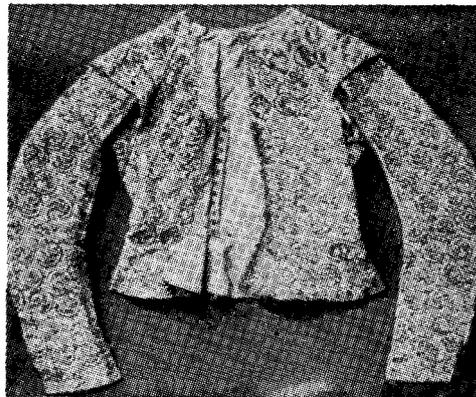
초기의 조끼에는 긴 소매가 달려 있었는데, 이 소매는 타이트(tight)하게 몸에 잘 맞았으며 길이가 주스또꼬르의 소매보다 길어서 뒤집어 접었을 때 주스또꼬르의 소매위로 커프스가 겹쳐졌다.

조끼는 주스또꼬르 속에 裝飾的인 目的으로 着用되면서 주스또꼬르의 색과 조화되는 화려한 색



<그림 5> 17세기 남자의 조끼.

(Francois Boucher, 20000 Year of Fashion, p. 276)



<그림 6> 17세기 남자의 짧은 뿌르뿌엥.

(Francois Boucher, 20000 Year of Fashion, p. 276)

을 使用하였으며 옷감도 金銀실을 넣어 짠 여러 가지 실크에 刺繡를 놓아 화려함과 裝飾的인 機能을 더해주었다.

그러나 의복복으로 使用할 때에는 대부분 흰색의 조끼를 입었으며 차차 소매가 없어지면서 조

23) 丹野郁, 原田二郎 著, 李熙賢 譯, 前掲書, p. 118.

24) Francois Boucher, 前掲書, p. 258.

25) 정홍숙, 前掲書, p. 177.

26) Francois Boucher, 前掲書, p. 258.

27) 池東鄭, “근대 신사복(suit)정형화 과정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대학원, 1984, p. 6.

끼는 오늘날 男子紳士服의 조끼형태로 변하게 되었다<sup>28)</sup>.

#### 4) 로코코시대의 조끼

18세기로 오면서 프랑스를 비롯한 西部유럽의 남성용 衣裳에는 커다란 變化가 거의 없었다<sup>29)</sup>. 一般的으로 남성복의 라인이 점차 단순해지고 實用的으로 변한 반면에 조끼는 18세기의 服飾에서 가장 裝飾的인 役割을 하는 중요한 品目이 되었다.

前時代와 마찬가지로 조끼는 주스또포르나 프록(frock)등의 외투 속에 바지와 함께 着用되었다. 이 때 주스또포르나 프록의 앞여밈은 단추를 채우지 않고 열어 놓아, 속에 입은 조끼를 보이게 했으므로 조끼는 점점 裝飾的인 성격을 띄면서 화려한 刺繡나 寶石裝飾을 하여 가장 사치스럽게 꾸밀 수 있는 男性服이 되었다.

18세기 초기까지는 긴 소매가 달린 조끼가 많았으나(그림 7), 1760년대 이후 소매 없는 조끼가 등장하게 되면서, 소매가 있는 조끼는 겉에 외

투를 입지 않고 실내에서 걸치는 라운지 자켓과 같은 용도로만 着用되었다<sup>30)</sup>.

18세기 후반으로 오면서 조끼는 루이 16세 때 도입된 영국의 實用的인 服飾의 影響을 받아, 수수한 시민풍의 조끼가 流行하게 되었다. 이는 질레(gilet)라는 이름과 웨이스트 코우트(waist-coat)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워졌으며<sup>31)</sup> 一般的으로는 베스트(veste)라는 이름으로 통용되었다.

조끼는 주로 수수한 천으로 만들었으며 앞판에는 고급소재를 사용하고 뒷판은 저렴하고 實用的인 천을 使用하였으므로 庶民에서 貴族까지 널리 着用하는 衣服이 되었다. 이와 함께 코트와 조끼에 使用했던 화려한 刺繡裝飾도 점점 사라지게 되었다

조끼는 19세기로 가면서 現代조끼의 形態를 완전히 갖추게 되었고 男性 紳士服의 한 구성요소로서 중요한 役割을 담당하게 되었다<sup>32)</sup>.

#### 4. 近 代



<그림 7> 18세기 초기의 조끼.  
(정홍숙, 서양복식사, p. 216)

28) 정홍숙, 前掲書, p. 177.

29) Francois Boucher, 前掲書, p. 308.

30) 申尙玉, 前掲書, p. 227.

31) Francois Boucher, 前掲書, p. 308.

32) 丹野都, 西洋服飾發達史(近世編)(東京:光生館, 1960), p. 188.

### 1) 歷史的 背景

西洋史에서 19세기는 근대사회의 발생과 發展의 時期이며 民主主義의 기틀이 마련되고 資本主義가 成熟되어 市民들의 文化가 서서히 자리잡아가는 時期이기도 하다.

19세기의 特徵은 격심한 變化라고 할 수 있는데, 이 變化를 이끌어 나간 原動力은 프랑스의 대혁명과 영국의 산업혁명이 두가지 혁명이었다고 정의할 수 있다.

18세기말에 일어난 프랑스 대혁명은 유럽 각국, 남미, 미국 등 세계 전역에 걸쳐 혁명의 자극적인 役割을 하였고, 혁명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일어난 정치적인 혁명과 전쟁을 통하여 19세기 유럽의 각 국가들은 近代國家로서의 기틀을 확고히 다져나갔으며 政治, 經濟, 社會, 文化 모든 면에서 커다란 發展을 하기 시작하였다.

19세기의 경제는 주로 織物産業을 기반으로 資本主義體制가 發展되고 정치적인 혁명과 과학이 발달됨에 따라 社會는 급진적인 變化를 겪게 되었다.

특히 服飾史상 획기적인 發展을 가져온 것은, 1851년 Issac. M. Singer(美:1811~1875년)에 의한 재봉틀의 發明이었다. 또한 1871년 미국에서 패턴(pattern)이 창안됨으로써 재봉틀과 함께 衣服構成 技術에 큰 進展을 보이게 되었다<sup>33)</sup>. 服飾도 보다 實用的이고 간소화 되었으며, 기성복의 생산도 활발해졌는데 미국에서는 그 發展이 현저하였다.

19세기말 産業의 發達과 함께 도시생활이 擴大됨에 따라 일상생활도 다양해져 衣服에서도 점차 일상복, 외출복, 사교복, 운동복 등으로 용도에 따라 衣服의 구분이 뚜렷해졌으며, 이러한 現象은 사회활동이 많은 男性服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sup>34)</sup>. 男性服은 19세기 後半 紳士服의 출현으로 인하여 外觀상 男性服의 합리화를 이루게

되었다.

### 2) 19세기의 조끼

프랑스혁명을 계기로 하여 남성복은 중요한 轉期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은 男性服의 색과 多樣性 그리고 裝飾性을 잃어 간다는 점이다. 조끼 또한 이러한 시대적인 영향으로 單純하고 實用的인 디자인이 市民들에게 애용되었다.

19세기가 시작되었어도 男性服은 거의 변하지 않은 채로 있었으며, 變形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細部사항에 그칠 뿐이었다.

1820년대에 있어서 조끼는 服裝에 개인적인 취미와 個性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部分이었으므로 다양한 스타일이 많았다.

1830년대 조끼의 변화는 그 형태보다는 옷감이나 단추에 더 많이 나타나는데, 빌르트는 가장 많이 애용해온 옷감이며 줄무늬, 색깔 있는 벨벳, 바둑무늬, 무늬 있는 실크 등을 사용하여 밝은 느낌을 주기도 하였다<sup>35)</sup>.

1850년대로 오면서 男性衣服에서 이루어진 가장 큰 變化는 코트, 조끼(veste, waistcoat, gilet), 바지로 이루어진 한벌의 수트가 성립되면서 현대 남성 쓰리피스(three-piece)의 起源을 이루었다는 점이다.

19세기 후반의 30년간은 衣服의 공장생산량의 현저한 增加와 함께 이에 상응하는 질의 低下가 나타났는데 男性服의 歷史를 研究하는 한 사람은 이 기간에 대해서 말하기를 “一般的으로 말해서 이 당시의 男子들은 그 以前의 어느 時代보다 우아하지 못하고 초라한 차림이었다. 이때는 위대한 産業의 進歩가 이루어졌으며 衣服보다는 사업에 대한 關心이 컸던 시대였다.”라고 하였다<sup>36)</sup>.

조끼도 이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화려한 色相, 무늬, 천을 사용해서 服裝의 악센트를 주는 慣習은 사라졌으며, 자켓과 함께 수트를 이루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같은 계열의 色相과 천을

33) Helen. L. Brockman, *The Theory of Fashion Design*(N.Y:John Willy & Sons Inc, 1965), p. 66.

34) Dorren Yarwood, *Fashion in The Western World(from 1066 to the Present)* (London: B.T Batsford Ltd, 1992), p. 109.

35) Blanche Payne, 이종남 외 3人 譯, 「복식의 역사-고대이집트에서 20세기까지」(서울:도서출판 까치, 1988), pp.522-5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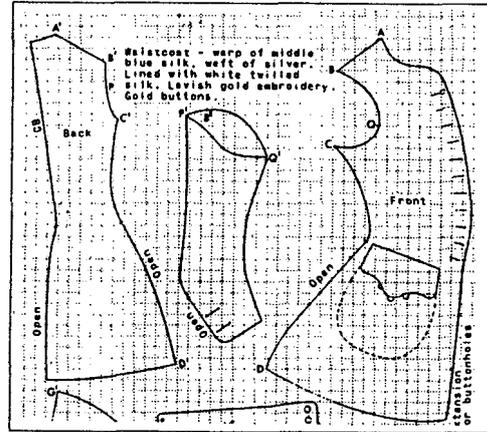
36) Blanche Payne, 이종남 외 3人 譯, 前掲書, p. 530.

使用하여 전체의 統一美를 중요시하게 되었다.

19세기 말기인 1880년대 이후 조끼는 주로 정장으로 사용되었고 주로 코트와 대조적인 옷감으로 만들어졌다.

19세기가 끝날 무렵, 前世紀들의 과시하는 모습과 문화는 남성들의 衣服에서 실제로 사라졌으며 활동성을 요구하는 産業化된 時代에서 증가되어 가는 캐주얼한 분위기는 生活의 모든 면에서 衣服에 影響을 주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경향과 함께 조끼도 점점 캐주얼한 形態로 변하기 시작하였으며 20세기로 들어서면서 조끼는 단지 男性 수트의 완성을 이루는 儀禮的인 衣服이 아니라 오늘날 男性 衣服에서 개성과 개인적 취향을 나타낼 수 있는 衣服으로서 다양한 용도로 發展해 가고 있다.



<그림 9> 17세기 조끼의 裁斷圖.

(Blanch Payne, *History of Costume*, p. 641)

#### IV. 조끼의 構成과 素材 및 裝飾

##### 1. 形態 및 構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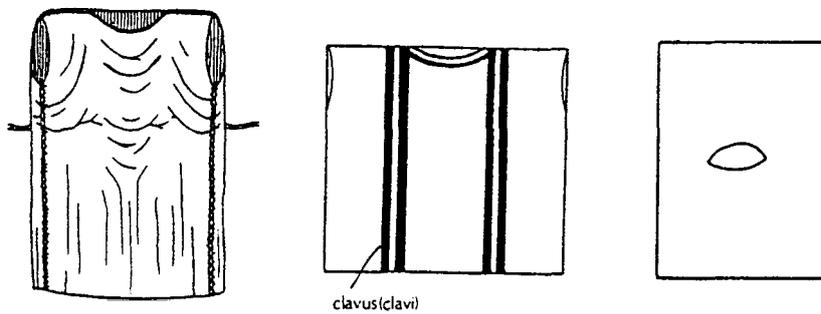
소매가 없거나 아주 짧은 소매가 붙은 조끼 形態의 典型的인 콜로비움의 構成方法은 <그림 8>에서처럼 서로 비슷한 形態로 만들어 졌다. <그림 8>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리스의 콜로버스와 로마, 게르만인의 콜로비움은 목이 나올 곳만 남기고 어깨나 옆 솔기를 때때 붙여 만들거나 또는 한 장의 큰 옷감 한가운데 목을 뚫고 옆 솔기를 때때어 만들었다.

중세에는 군인들이 추위와 무기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심을 넣어 누비는 조끼 형태의 襦褌

이 갑옷 속에 착용되었다. 身體에 꼭 맞게 裁斷된 襦褌은 겨드랑이 밑으로 트임을 만들어 끈으로 조인 形態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14세기경에는 동양풍의 카프란 스타일의 影響을 받아 앞트임에 끈이나 단추를 채우는 스타일이 주류를 이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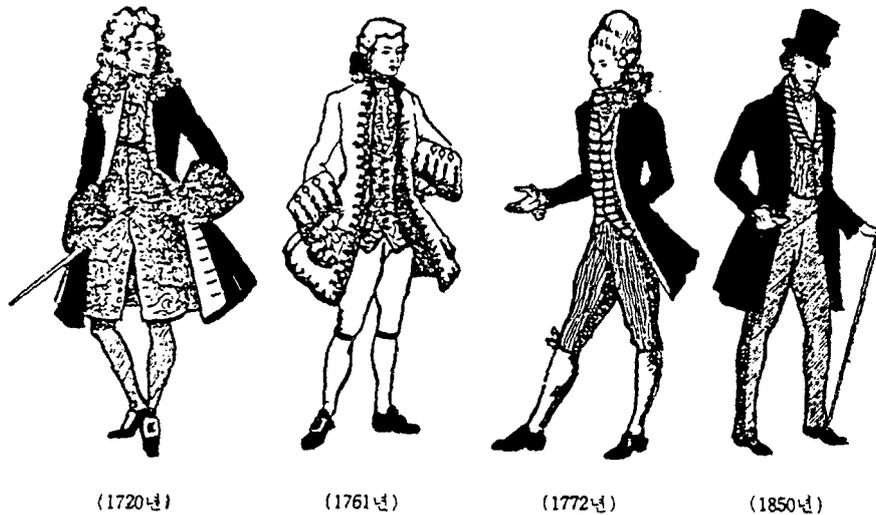
14세기로 오면서 켈트 되어진 모든 옷들은 부르부엥이라는 名稱으로 불리워졌으며, 여기에 소매가 달리어 자켓 형태로 만들어졌다. 르네상스 시대로 오면서 부르부엥은 身體의 線을 과장하는 形態로 발전해 나갔다.

17세기로 오면서 부르부엥은 점점 縮小되기 시



<그림 8> 각 시대 콜로비움의 구성방법.

(김현숙, 「무대의상 디자인의 세계」(서울:고려원, 1995)를 참고로 본인이 작성)



<그림 10> Waistcoat로부터 조끼로의 上昇脫皮,  
(遺貞嬾, 服裝原論, p. 162)

작하였고 17세기 中期의 푸르루엥은 점점 더 縮小되어 볼레로形態가 되었으며, 17세기 末期에는 소매 달린 조끼形態를 갖추게 되었다(그림 9).

18세기로 오면서 조끼는 점점 實用的으로 單純化되기 시작하였고, 그 길이는 점점 짧아져 허벅지 중간길이까지 오게 되었고, 소매는 더 이상 달리지 않게 되었다. <그림 10>을 통해 우리는 18세기의 조끼가 어떠한 形態로 變化되어 왔는지 알 수 있다.

19세기로 오면서 조끼는 더욱더 다양한 形態로 發展되었으며 여러 形態의 칼라들이 다양하게 응용되어졌다.

## 2. 素材와 色相

각 시대마다 衣服에 사용되는 素材와 色相은 착용자의 身分과 階級, 富의 尺度를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手段이 되어왔다.

고대의 콜로비움은 농민이나 下層民들이 着用하였던 소매없는 튜닉 形態의 衣服이므로 그 素材 또한 <표 1>에서처럼 주로 거친 모직물이나 동물가죽 등의 투박한 材料들을 사용하였다. 특히 북유럽의 게르만인들은 牧畜을 生業으로 하는 生活環境으로 인해 동물가죽을 衣服의 주재료로

사용하였으며, 下層民들은 염소가죽으로 만든 콜로비움을 着用하였다.

中世에는 비잔틴의 영향으로 동방에서 들여온 실크가 중요한 衣服材料로 使用되었으며, 9세기에서 13세기까지는 織物의 製造가 급속히 발전하였다. 이러한 織物들은 어두운 적색과 자주보라, 어두운 보라와 노랑을 혼합한 색들로 염색되었다.

14세기 이후 푸르루엥이라는 名稱으로 일반화된 퀴롱이 귀족에서 일반서민에게까지 擴大되어 着用되기 시작하자 <표 2>에서처럼 푸르루엥의 材料도 점점 多樣化되었다.

16세기 初期의 王族과 上流階層의 衣裳은 밝은 色相이 流行되었으며, 특히 빨간색이 애용되었다. 그러나 中期이후 스페인 모드가 유럽을 지배하면서 수수한 色彩와 검정색이 압도적으로 流行되었다.

17세기 푸르루엥이 縮小되면서 나타난 조끼는 앞판은 실크, 브로케이드와 같은 값비싼 직물로 만들고, 뒷판은 麻織物 등의 값싼 직물로 만든 것이 특징이었으며, 주로 외부와 대비되는 화려한 色을 사용하여 사치스럽게 발달하였다.

18세기로 오면서 궁정복으로 사용된 조끼에는

&lt;표 1&gt; 古代 조끼(colobium)의 素材와 色相

시 대	名稱 \ 素材	織 物	色 相	기 타	
기원전 고대	그리스	콜로버스 (kolobus)	울(wool)	회색빛이 도는 흰색, 깊은 붉은색, 갈색	
	로마	콜로비움(colobium) 또는 튜니카(tunica)	울(wool), 린넨(linen), 면	흰색	평민 이상의 계층에서는 자주색 플라비가 있는 튜니카를 착용함.
	고대 게르만	콜로비움(colobium) 또는 쥐퐁(jupon)	동물가죽, 울(wool), 린넨(linen)	흰색, 보라색, 분홍색, 푸른빛이 도는 검정색	식물염색이 발달, 하층민은 주로 염소가죽을 사용.
초기기독교 (AD 1~4세기)	콜로비움 (colobium)	울(wool), 린넨(linen), 면	흰색	대부분 성직자들이 착용하였으므로 흰색이 주로 쓰임.	
중세 (AD 5~15세기)	콜로비움 (colobium)	울(wool), 린넨(linen), 실크(silk)	흰색, 깊은 붉은색, 자주보라, 어두운 보라 외 여러 가지 색		

&lt;표 2&gt; 푸르푸엥(pourpoint)의 素材와 色相

시 대	名稱\素材	織 物	色 相	기 타
중세 중기이후	11~13 세기	쥐퐁 (jupon)	울(wool) 동물가죽	
	14~15 세기	푸르푸엥 (pourpoint) [또는 더블릿 (doublet)]	겉감:울(wool), 다마스크(damask), 실크(silk), 사틴(satin), 벨벳(velvet) 안감:린넨(linen), 캔버스(canvas)	선명한 色相과 빛나는 밝은色相이 애용됨.
16세기	푸르푸엥 (pourpoint) [또는 더블릿 (doublet)]	상류층:실크(silk), 벨벳(velvet), 타프타(tafta), 브로케이드(brocade) 중류 이하:모직, 가죽	주로 밝은 색상이 유행, 깊은갈색, 빨간색, 자주색, 청색, 금색브로케이드, 검정색	16세기말 스페인 mode의 영향으로 검정색이 유행되었다.
17세기	푸르푸엥 (pourpoint) [또는 더블릿 (doublet)]	실크(silk), 벨벳(velvet), 공단, 타프타(tafta), 브로케이드(brocade), 레이스(lace)	심홍색, 초록색, 갈색, 靑靑色, 빨간색, 자주색, 노란색 등이 선호됨.	무늬가 다양하고 수가 높은 옷감도 자주 사용됨.

여전히 호화로운 織物을 사용하였고, 반면 實用的인 평상복으로 着用된 조끼는 서어지, 모직물, 가죽 등의 수수한 素材를 사용하여 만들었다. 특히 결혼의상과 궁정에복으로는 주로 흰색의 조끼

&lt;표 3&gt; 조끼( vest, waistcoat)의 素材와 色相

시 대	名稱\素材	織 物	色 相	기 타	
17세기	베스트 (veste) 또는 웨이스트 코트 (waistcoat)	앞:실크(silk), 브로케이드 (brocade), 벨벳(velvet) 뒤:麻직물 외 값싼 직물	붉은색, 靑色 등의 화려한 色相이 주를 이룸.	주로 의부와 대비되는 화려한 색을 사용	
18세기	베스트 (veste) 또는 웨이스트 코트 (waistcoat), 길레(gilet)	중정복:브로케이드(brocade), 다마스크(damask), 실크(silk) 평상복:서어저 모직물, 가죽	하얀 분가루와 옅은 파스텔 색조의 색상이 유행·중기 이후 자연스럽고 수수한 색상 이 애용되었으며 줄무늬가 사용되기도 함.	중정예복, 결혼의상; 흰색의 veste가 사용됨. 金, 緞, 色絲로 자수를 놓은 화려한 옷감을 사용하기도 함.	
19 세기	1800~ 1820	베스트 (vest)	모직물, 면직물, 실크(silk)	밝고 다양한 색상이 사용됨. (흰색, 진홍색, 크림색, 담황색, 검정색 등) 흰색에 사선, 수평선, 수직선의 줄무늬가 있는 것이 애용됨.	중정예복:흰색 비단에 金絲로 수를 놓은 것이 애용됨.
	1820~ 1850		실크(silk), 벨벳(velvet), 줄무늬 있는 피케(pique), 캐시미어	화려한 색상이 유행 (흰색, 검정색, 분홍색) 줄무늬, 박독무늬	저녁시간의 예복으로 흰색조끼가 많이 착용됨.
	1850~ 1870		브로케이드(brocade), 새틴(satin), 견모교직물, 벨벳(velvet), 피케(pique)	화려하고 과감한 색상이 유행, 꽃무늬, 줄무늬, 점무늬, 페이즐리무늬 등 다양한 무늬가 사용됨.	
	1870~ 1900		실크(silk), 린넨(linen), 피케(pique) 외에도 다양한 직물이 사용됨.	다양한 색상과 다양한 무늬가 사용됨(줄무늬, 체크무늬 등)	포멀한 정장:흰색 실크조끼 저녁식사예복:검정색 조끼 체크무늬 등)

를 着用하였다.

19세기에는 織物産業이 發達함에 따라 <표 3>에서처럼 다양한 織物이 조끼의 材料로 사용되었으며, 色相 또한 개인적 취향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色相이 유행되었다.

現代로 오면서 織物産業과 염색방법이 급속도로 발달하게됨에 따라 조끼에 사용되는 素材와 色相 또한 다양해졌으며, 조끼는 개인의 취향에 맞는 素材와 色相을 선택하여 각자의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男性服으로서 지금까지 着用되어지고 있다.

### 3. 裝飾과 附屬品

그리스, 로마시대의 콜로비움은 주로 身分이 낮은 階層에서 着用하였던 조끼形態의 튜닉이므로, 특별한 裝飾이나 附屬品없이 단순하게 허리에 띠를 매는 것이 裝飾의 전부였다.

A.D.1세기~5세기경의 북방게르만족이 着用했던 콜로비움 역시 특별한 장식은 없었으나, 털가죽으로 만든 콜로비움은 자연히 목둘레와 도련부분의 털이 밖으로 삐져나와 마치 털로 트리밍한 것 같은 裝飾의인 模樣이 되었다. 이 時期의 북방게르만족들은 주로 청동을 재료로 한 벨트와 그 부속품인 버클을 만들었으며, 벨트와 버클은 사용재료에 따라 착용자의 身分은 나타내기도 하였다.

中世로 오면서 비잔틴의 초기기독교인들에게

종교적인 목적으로 착용되었던 콜로비움은 아무런 장식없이 달마티카위에 걸쳐 입었다<sup>37)</sup>.

14세기 이후 귀퉁은 부르부엥으로變形發達되었으며, 이 시기에 사용된 단추는 옷을 여미는 것뿐만 아니라 보석이나 金屬을 단추의 材料로 使用하면서 裝飾的인 機能도 함께 하였으며, 착용한 벨트 또한 實用性和 裝飾性을 띤 중요한 品目이었다.

16세기가 되면서 王族과 貴族階層은 부르부엥에 다이아몬드, 루비, 진주 등의 보석을 붙여서 무늬를 만들 정도로 과도하게 裝飾을 하였고, 단추가 장식적인 機能을 하기 시작하면서 보석단추로 부르부엥 전체를 裝飾하기도 하였다.

16세기의 寶石裝飾이 17세기에는 단추와 보우, 레이스장식으로 변하였다. '루이 14세의 단추는 男子전용의 것으로 되어 보석으로 만들어졌으며, 그 가치는 무게에 의해 결정되었다. 루이 14세의 단추는 60만 달라나 되었다<sup>38)</sup>'는 실례로 미루어 보아 단추의 장식성이 이 시기에는 의복에 얼마나 중대한 영향을 주었는지 잘 알 수 있다.

18세기로 오면서 조끼는 服飾에서 가장 裝飾的인 役割을 하는 중요한 품목이 되었으며, 이 당시에 단추의 재료는 보석류로 취급되어 衣服보다 고가였으며 단추 구멍도 金絲로서 곱게 감침질하여 화려하게 장식하였다<sup>39)</sup>. 또한 18세기 男性들의 裝飾品중에는 줄 시계가 대유행하게 되었고, 두 개를 조끼의 양쪽 포켓에 각각 넣어서 사용하기도 하였다<sup>40)</sup>.

18세기 이후 남성들은 겹 대신에 속에 칼이 장치된 지팡이를 호신용 장식품으로 지니고 다녔다. 또한 확대경이 더욱 편리해진 모노클(monocle)이라 불리운 한알안경을 악세서리로 사용하기도 하였다<sup>41)</sup>. 19세기로 오면서 조끼는 점점 實用性을 띄기 시작하면서 수수한 색조의 천으로 짠 소박한 단추를 사용하였으며, 줄시계는 여전히 남성조끼를 장식하는 중요한 裝飾品으로 사용되어졌다.

現代로 오면서 남성조끼는 裝飾性보다는 實用

性을 더욱 강조하게 되었고, 附屬品이나 다른 특별한 裝飾品으로 화려하게 꾸미는 대신, 개인의 취향에 따라 織物이나 무늬를 통해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衣服으로 發展되었다.

## V. 結 論

조끼는 소매 없는 上衣를 總稱하는 衣服으로서, 그리스시대의 농민들이 키본의 대응으로 着用하기 시작했던 소매 없는 튜닉形態의 콜로비움을 그 起源으로 볼 수 있다.

콜로비움은 로마시대로 오면서 콜로비움 혹은 유니카라고 불리었는데, 콜로비움은 초기 로마의 下層民들이 着用하였던 소매가 없거나, 아주 짧은 소매가 달린 조끼形態의 유니카를 指稱하는 말이었다.

마찬가지로 같은 시기에 着用된 북유럽 게르만의 콜로비움도 로마의 콜로비움과 같은 소매없는 조끼形態의 衣服으로서, 게르만인들은 주로 그들의 추운 氣候條件을 견디기 위한 防禦의 目的으로 동물의 털가죽으로 만든 콜로비움을 着用하였다. 고대의 콜로비움을 주로 下層民들이 着用한 衣服이므로 별다른 裝飾은 없었으며 주로 허리를 조이는 벨트가 裝飾品으로 使用되었다.

중세로 오면서 콜로비움은 고대로마, 그리스의 傳統을 이어받은 비잔틴에서 초기기독교인들에게 달마티카 위에 입는 걸옷으로 着用되어졌으며, 오직 身分이 낮은 賤民들만이 허리에 띠를 매지 않은 形態로 콜로비움 하나만 着用하였다. 북유럽 게르만인들 역시 고대 게르만의 傳統을 그대로 이어받아 身體에 密着되는 形態의 콜로비움을 계속 着用하였으며, 이때의 콜로비움은 立體的인 裁斷方法으로 만들어져 바지와 함께 주로 男性들에게 着用되었다.

중세중기로 오면서 단순한 조끼形態의 콜로비움은 십자군전쟁의 影響으로 좀 더 몸에 밀착된 形態의 조끼를 필요로 하게 됨에 따라 점점 사라지게 되었고, 귀퉁이라는 새로운 形態의 조끼가

37) 김현숙, 前掲書, p. 163.

38) Camptons Encyclopedia and Fact-Index, vol. 2, 前掲書, p. 397.

39) 정미성, "복식발달에 따른 단추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1, p. 27.

40) 김현숙, 前掲書, p. 381.

41) 김창준, 前掲書, p. 107.

군인들에게 着用되기 시작하였다.

14세기경부터 袴는 군복으로서만이 아니라 一般庶民들에게도 庶民服으로 着用되기 시작하였고, 이때의 袴는 되어지고 패딩 되어진 옷들은 모두 뿌르뿌엥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게 되었다. 뿌르뿌엥은 소매가 달리지 않은 조끼形態의 袴와는 달리 주로 소매가 달린 자켓形態로 만들어졌으며, 身體에 밀착되는 관계로 앞트임에 단추를 달아서 입기에 편리하도록 하였다. 이때의 단추는 단순히 옷을 여미는 機能뿐만 아니라 裝飾的인 機能으로도 使用되어 寶石이나 金·銀 등의 金屬으로도 만들어졌다.

16세기 르네상스시대로 오면서 뿌르뿌엥은 패드와 퍼프, 슬래쉬를 사용하여 身體의 線을 과장하는 形態로 發展해 나갔다.

그러나 17세기로 오면서 네델란드 市民服의 影響을 받은 뿌르뿌엥은 패드와 퍼프, 슬래쉬가 없어지고 보다 간편한 옷차림으로 변해갔다. 뿌르뿌엥에는 짧은 소매가 달리거나 소매가 거의 달리지 않았으며, 옷 길어도 짧아져 허리 절개선과 스커트 부분이 없어지고 옆선이 거의 직선으로 되어 活動하기 편한 스타일이 되었다.

17세기 중기의 뿌르뿌엥은 점점 더 縮小되어 볼레로 자켓의 形態로 되었으며, 17세기 말기에는 소매 달린 조끼形態로 變形되어 외투 속에 입혀지게 되었다.

18세기로 오면서 조끼는 17세기에 비해 길이도 짧아졌으며, 매우 정교하고 섬세하게 裝飾이 되었다. 이와 함께 조끼는 18세기 服飾에서 가장 裝飾的인 役割을 하는 중요한 品目이 되었다.

18세기 말기에 조끼는 이제 완전히 팔이 없는 조끼의 形態를 갖추었고 길이가 매우 짧아져 허리선 아래까지 오게 되었다.

19세기로 오면서 조끼는 더욱 다양한 形態로 發展되었다. 전체적으로 몸에 꼭 맞게 裁斷된 조끼는 허리선이 일직선이 되어 허리선이 점점 제 위치로 定着되어 갔으며, 여러 形態의 칼라들이 多樣하게 用되어 개인의 趣向에 맞게 着用되어졌다.

이와 함께 한알 안경과 줄시계는 조끼의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는 紳사들의 裝飾品으로 流行하기도 하였다.

19세기가 끝날 무렵 前時代의 과시하는 모습과 文化는 男性들의 衣服에서 실제로 사라졌으며, 産業化된 時代에 증가되어 가는 캐주얼화 된 분위기는 生活의 모든 면에서 衣服에 影響을 주어 男性조끼도 점점 캐주얼한 形態로 변하기 시작하였고, 오늘날 남성 衣服에서 個性을 나타낼 수 있는 衣服으로서 多樣的 用도로 發展해 가고 있다.

## 參考文獻

1. 김경자, 「西洋服飾史」, 서울:良書閣, 1996.
2. 김창준, 「패션의 역사 I」, 서울:라미라, 1992.
3. 김현숙, 「무대의상 디자인의 세계」, 서울:고려원, 1995.
4. 남윤자, 이형숙 共著, 「남성복연구」, 서울:교육연구사, 1996.
5. 백영자, 유효순 共著, 「西洋服飾文化史」, 서울:경춘사, 1989.
6. 道貞嬭, 「服裝原論」, 서울:修學社, 1991.
7. 신상옥, 「西洋服飾史」, 서울:修學社, 1989.
8. 신혜순, 「패션용어해설집」, 서울:유림문화사, 1994.
9. 柳景塚의 3인 解説, 「동아미술대전집(로마미술)3권」, 서울:동아출판사, 1985.
10. 이순홍 外 4人譯, 「그림으로 보는 서양복식사」, 서울:경춘사, 1992.
11. 李英範, 劉共祚, 金南顯 共著, 「西洋文化史」, 서울:良書院, 1993.
12. 이정옥, 「서양복식사」, 서울:학문사, 1981.
13. 이춘희, 「西洋服飾史」, 서울:益文社, 1976.
14. 鄭桓吉, 「新文化史概論」, 서울:博英社, 1982.
15. 정홍숙, 「服飾文化史」, 서울:敎文社, 1897.
16. 조자호, 「世界文化史」, 서울:박영사, 1980.
17. 한대회, 채수환 編著, 「文化史概說」, 서울:良書院, 1994.
18. 丹野郁, 原田二郎, 이현희 譯, 「西洋服飾社」, 서울:중앙기능개발연구원, 1984.
19. Blanche Payne, 이종남 外譯, 「복식의 역사-고대 이집트에서 20세기까지-」, 서울:까치, 1988.
20. 강두옥, 「18. 19세기 단추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21. 구에리나, "단추와 단추구멍의 變遷에 關한 研究",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22. 金基業, "Gothic시대의 男女服飾에 關한 研究",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5.
23. 金銀環, "男性服의 服飾史的 考察", 정주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24. 成智淑, "로마네스크시대 복식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25. 楊淑喜, "19世紀 유럽 紳士服 Mode의 特性", 「韓國衣類學會誌」第8卷 第2號, 1984.
26. 柳汀夏, "남성복의 변화에 관한 연구 -1985년 이후 국내 남성복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27. 李熙現, "6~18世紀 西洋服飾의 變化에 關한 研究 -精神分析學的 着用動機 理論에 의한 分析-",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28. 李惠英, "中世末期 西洋服飾의 特性에 關한 研究",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29. 張玄春, "Byzantine 복식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3.
30. 鄭京羅, "中世末期의 프랑스 服飾에 關한 考察(13~14世紀를 中心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31. 정미성, "복식발달에 따른 단추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32. 鄭敏淑, "16세기 男子服飾에 關한 考察",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33. 鄭恩美, "19世紀 Dandy服飾의 美學的 考察",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4. 曹美那, "西洋 男子바지 變遷에 關한 服飾史的 考察 -르네상스 以後를 中心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35. 池東鄭, "近代紳士服(suit)의 定型化 과정에 關한 研究", 홍익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36. 최영옥, "中世 西洋 文章과 文章服의 象徴性에 關한 研究",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37. 丹野郁, 西洋服飾發達史(近世編), 東京:光生館, 1960.
38. 丹野郁, 近代西歐服飾發達文化史, 東京:光生館, 1958.
39. 丹野郁, 原田二郎 共著, 西洋服飾史, 東京:衣生活研究會, 1956.
40. 石山彰, 服飾意匠, 東京:光生館, 1970.
41. 中田滿雄, 服飾の歴史, 東京:文化出版社, 1979.
42. Blanch Payne, "History of Costume",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65.
43. Camptons Encyclopedia and Fact-Index, Vol.2, P.E. Compton Company, 1975.
44. Cornelius Tacitus, *The Germany and Agricola of Tacitus*, Piladelpia: Makay, 1987.
45. Cunnington, C. Willet and Phillis, *Handbook of English Costume in The Nineteenth Century*, London: FABER, 1966.
46. Dorren Yarwood, *Fashion in The Western World(form 1066 to the present)*, London: B.T Batsford Ltd, 1992.
47. Douglas A. Russell, *Costume History of Style*, N.J:Prentice-Hall, 1983.
48. Farid Chenoune, *A History of Men's Fashion*, France:Flammarion, 1995.
49. Francois Boucher, *20000 Year of Fashion*, N.Y:Harry Abrams, 1975.
50. Helen. L. Brockman, *The Theory of Fashion Design*, N.Y:John Willy & Sons Inc, 1965.
51. Herbert Norris, *Costume and Fashion*. vol. II, London:J. M. Dert & Sons Ltd, 1927.
52. Jack Cassin-Scott, *The Illustrated Encyclopaedia of Costume And Fashion 1550~1920*, London:Co.,Inc., 1986.
53. Joanne Dubbs Ball and Dorothy Hehl Joren, *The Art of Fashion Accessories*, PA: Schiffer Publishing Ltd, 1993.
54. Maurice Leloir, *Dictionnaire du Costume*, Paris:Librairie Grund, 1992.
55. Milla Davenport, *the Book of Costume*, N. Y:Crown Pub. Inc, 1978.
57. R. Turner Wilcox, *The Dictionary of Costume*, London:Batsford, 1982.